

交通 표지판과 컴퓨터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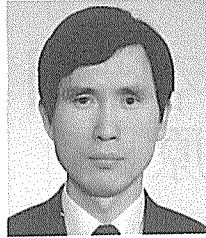
도로표지판은 외형이 보기좋은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설치되는 위치도 중요하다. 내용이나 위치가 모두 이용자, 즉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의 경우 목적지의 방향과 그곳을 가기위해 進入해야 할 길의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다. 서울시내의 표지판은 종종 이용자에게 이같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얼핏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될일 같지만 그렇지만도않다. 도로표지판 하나 세우는 것도 교통의 흐름을 분석하여 운전자나 보행자가 어떤 도로표지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근 도로 교통분야에서도 컴퓨터의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내용과 해당정보의 활용이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입할수 있다. 그러나 電算化가 전산전문가나 컴퓨터위주의 시스템설치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이용자를 위하고, 이용자가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이용자와 컴퓨터가 혼연일체가 되는 시스템이 돼야한다.

요즈음 차를 타고 시내를 다녀보면 교통질서·도로환경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볼수있다. 차선·신호체계·교통

유원재
대우전자 상무



표지판등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다. 운전이 미숙한 오너 드라이버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조건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처음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지도만 있으면 별 어려움없이 찾아갈수 있다. 이는 지도가 정확하고 도로표지가 합리적으로 標準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日本東京의 지하철망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지하철지도만 가지면 가고자하는 곳을 初行이라도 혼자서 찾아갈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의 地理를 모르는 사람이 지도만 보고 목적지를 찾아 가기는 정말어렵다.

이는 서울시내의 도로망, 특히 교차로에서의 차선배치 상황등을 나타낸 교통지도의 사용이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설사 지도가 있다하더라도 도로표지가 체계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